

중등학교 체육·예술 교과 평가 방식 개선안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민 경 훈*

차 례

- I. 들어가면서
- II. 연구 절차 과정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
- III. 체육·예술 교과 평가 방식 개선안의 개요
 - 1. '체육·예술 교과의 평가 결과 기록 방식 개선안'의 의미
 - 2. 개선의 기본 방향
 - 3. 주요 개선 내용
 - 4. 기대 효과
- IV. 개선안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 1. '개선'의 기본 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 2.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 V. 나가면서

I. 들어가면서

제도는 작게는 이해 당사자의 행동을, 크게는 인간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를 연구하는 국가의

*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정책은 반드시 그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증하여 정말 그것이 의도하는 바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만 해당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가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어떤 정책 연구보다 그 타당성 검증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사람을 기르는 일이고, 우리의 미래를 가꾸는 일로서,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이다.

2007년 6월 1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등학교(중·고등학교) 체육·예술 교과에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을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실행하고, 이 대신에 교과 적성, 노력 정도, 성취 수준 등을 서술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같은 개선안은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 및 사교육비 경감을 근거로 만들어진 안으로서, 이 방안이 좋다는 정부 및 일부 학부모 측의 찬성 여론과, 진정한 체육·예술 교육을 사라지게 만드는 조치라는 전문 교육 학자 및 교사 측의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체육·예술 교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인적 성격의 교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 방안을 그대로 공론화 없이 추진한다면, 앞으로 학교 체육·예술 교육은 물론, 교육 현장에 무수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발제는 국가 교육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 될 지도 모르는 이번 교육부의 '체육·예술 교과 내실화 방안' 중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평가 결과 기록 방식 개선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체육·예술 교과의 3등급 평가 제도가 발표나기까지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이 제도가 과연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현실에서 적절한 평가 방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2007년 7월에 체육·음악·미술 교육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가 각각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과연 교육부가 주장하는 정당성에는 오류가 없는지,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평가 방식 개선안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 절차 과정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

2007년 6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를 통한 인성과 창의성 교육의 비전 제시’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이 문화적 창의성이 국가경쟁력인 21세기를 대비해 전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심신이 건강하고, 문화예술적 소양을 지닌 학생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허창혁, 2007. p. 4). 그리고 교육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표 II-1>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안 (2007년 6월 13일)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안
1. 인성과 문화적 창의성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 투자
2. 체육·예술 교과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내신 활용성을 고려한 평가 기록 방식 개선
3. 고등학교 선택 과목 군 증대를 통한 학생들의 체육·예술 교과 이수 시간 및 선택 기회 확대

교육부가 발표한 ‘평가방식 개선안’은 현행 중·고등학교의 체육·예술 교과의 서열식 평가 기록 방식을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3단계(우수, 보통, 미흡) 절대 평가에 서술식 평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석차 및 5등급(수, 우, 미, 양, 가)’, 고등학교의 경우 ‘원점수/평균(표준편차) 및 9등급’으로 기록하는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을 폐지하고, 기본적으로 3등급(우수, 보통, 미흡) 절대 평가와 등급의 의미를 보완할 수 있는 서술식(교과 적성, 노력 정도, 절대적 성취 수준, 개선 정도, 학습 태도 등) 기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2006년 10월 12일에 교육부가 청와대에 보고하는 교육 과정 관

런 추진 과정 보고 문건에서 음악·미술·체육 교과를 점수 평가 대신 서술형 평가를 기본으로 상·중·하 3단계로 평가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제안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 및 사교육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다음은 해당 문건에 명시된 내용이다.

<표 II-2> 교육부가 청와대에 보고하는 교육과정 개정 관련 추진 과정 보고 문건 중에서

● 주요 과제 중 ~

7. 평가 방법의 개선

- 예체능 교과 평가의 개선
- 성적 평가가 아닌 이수 여부만 평가하여 학습 부담 및 사교육 부담 경감

그 후 2006년 12월 6일 몇몇 교사들은 청와대 행정관 및 교육부장관 보좌관과의 면담(06. 12. 06)에서 청와대의 지시 아래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변경을 통해서 사실상 내신 제외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그 자리에서 수업 시수의 확대와 내신 제외의 박탈을 요구받기도 하였다(박만용, 2007. p. 87). 그 후 2007년 초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중등학교 체육·예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에 대한 연구를 위탁하였고, 2007년 6월 8일에는 이 연구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외교 센터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 토론회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교과 전문 학자들과 교사들에 의하여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토론회가 열린 후 5일 후인 6월 13일 이 개정안을 토대로 교육부는 더 이상의 토론회와 공청회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더욱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한 연구보고서의 결과가 종결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음악·미술·체육 평가 방식 개정에 대하여 발표해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보아 이번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는 청와대 비서관의 보고 내용과 절묘하게 일치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 연구는

학문적 토대와 객관적인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그리고 실천적 가능성을 심사숙고하면서 순수한 학교 교육의 정상화, 체육·예술 교과의 정상적 활성화의 측면에서 연구되어진 것이 아닌, 철저하게 계획된 정치적 각본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임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이 연구는 2007년 1월에 교육부 초·중등 정책 과장으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6개월 단기 연구 과제로 ‘체·음·미 평가 기록 방식 변환 연구’가 수탁되었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해당 연구사들은 모두 연구 참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결국 이 연구는 2월에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체육·예술 교과와는 관계없는 비전문 연구자들에게 수탁·연구되어 7월에 마무리되었다. 이와 같이 체육·예술 교과와 전혀 관계없는 비전문 연구자들에 의한 체육·예술 교과 평가 방식 변경에 대한 연구가 과연 학문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질문 형태가 객관적이지 않고, 미리 내신 제외, 학습 부담,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결과를 설정해 놓고, 이 결과를 향해 답을 유도해 나가는 문항 형태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정택희, 2007).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는 체육·예술 교과에 가장 적합한 평가 방식이란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¹⁾. 더욱이 현 평가 체제 속에서 전 교과가 시행하고 있는 평가 결과 처리 방식을 이 세 교과만 전환하여야 하는 타당성과 정당한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교육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수 많은 교육 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관련 기관과 연구원들에게 해당 내용의 연구를 의뢰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절차를 거쳐야 하고, 토론회 절차가 끝나면 연구 결과와 토론회에서 제시

1) 연구보고서의 ‘연구 방법’ 중 ‘문헌 연구’와 관련하여서 단지 “체육·예술 교과의 교육과정 특성, 평가 기록 방식별 특징과 장단점, 국내외 체육·예술 교과 성적 기록 방식의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문헌들을 분석하였다.”고 기술되어 있고, 이외에 구체적인 문헌은 제시되지 않았다.

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안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수립된 정책안도 그대로 발표되는 것이 아니다. 수립된 정책안은 공청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내용과 타당성을 검증받고 나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이다(허창혁, 2007. p. 4). 교육 정책도 다르지 않아서 지금까지 발표된 교육부의 교육 정책 대부분은 비록 그것이 형식적인 수준일지라도 그러한 절차를 밟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 예로 이미 4년 전(200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체육·예술 교과에 대한 평가 방식에 대한 대책 연구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비록 다른 연구 결과들과는 달리 이 대책 연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연구는 1년간 3회의 공개 토론회와 1번의 공청회 그리고 각계각층이 참여한 협의와 해외 사례 연구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연구되었다(연구보고 CRC 2004-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당시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3> 2003년도 체육·예술 교과 평가 방식에 관한 대책 연구

1. 실기 점수 반영 비율의 개선 방안으로, 실기 점수 반영 비율을 50% 정도로 하향 조정한다.
2. 기본 점수 개선 방안으로, 실기 평가에서의 기본 점수는 평가 준거를 마련하여 부여한다.
3. 실기 평가의 내용 및 방법 개선의 방안으로, 체육·음악·미술 교과 별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한다.
 - 체육과는 실기 평가의 평가 규정 종목 수를 축소한다.
 - 음악과는 학교에서 배운 악기 중 학생 본인이 원하는 악기로 평가한다.
 - 미술과는 수업 시간 내에 제작한 작품을 평가한다.
4. 평가 결과 처리 방식 개선 방안으로, 평어와 과목별 석차를 제시하는 현행 평가 결과 처리 방식 유지를 제안한다.
5. 평가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교육 시설 개선 방안과 교사 교육에서의 교과 평가 관련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위와 같이 4년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체육·예술 교과 평가 방식에 대한 국책 연구에는 수차례의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 각계각층의 협의, 전문가들의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평가 방식을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그러나 4년도 채 되지 않은 동안 교육부가 평가 방식에 대한 동일한 연구를 해당 교과 전문인이 아닌 비전문가들에게 위탁하여 다른 교과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3등급 평가로 전환시켜 급히 마무리하여 발표를 하였는지 그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연구 과정의 절차가 지극히 비민주적인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교육부는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급하게 추진하였다. 정책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체육·예술 교과의 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 하였으나 6개월이라는 초단기 연구로 진행되었고, 한 차례 형식적인 토론회(6월 8일)를 거친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6월 13일 ‘줄속’이라는 말이 더 이상 어울릴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전격 발표하였다. 더욱이 교육부의 개정안 발표 전에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연구 결과 보고서가 개정 안 발표 후에 마무리되어 작성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교육부가 순수한 목적으로 체육·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그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로부터 정부는 정책의 타당성은 고사하고 연구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Ⅲ. 체육·예술 교과 평가 방식 개선안의 개요

1. ‘체육·예술 교과의 평가 결과 기록 방식 개선안’의 의미

체육·예술 교과에 대한 평가 결과 기록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교육부 국책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한 연구 내용이 ‘체육·예술 교과의 내실화 방안’이 아니라, ‘체육·예술 교과

학습발달상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을 중심으로 연구였던 점을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 진다. 따라서 평가 결과 기록 방식 개선안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번 체육·예술 교과 내실화 방안의 의미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 이번 방안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2005)에서 제시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성격을 분석한 내용이다.

<표 III-1> 학교생활기록부의 성격

성격	
가.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나. 성격	- 학교생활기록부는 법정 장부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인 동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강제성을 땀). - 작성된 결과를 학생의 교수·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활동 결과를 입력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상급학교의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학생활동 결과를 작성·보존함으로써 학생의 학적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생활기록부는 국가가 정한 법정 장부로서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교수-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상급 학교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사용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 생활, 교수-학습 지도, 상급학교 진학, 취업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증명서 형태로 기록되고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학교생활기록부는 이러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교과 발달의 영역에 교수-학습 지도를 위한 평가 결과 및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평가 결과를 동시에 표기하여야 한다.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평가 기록 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교수-

학습을 위한 평가의 경우에 중학교는 '5등급 절대 평가'를, 고등학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진학을 위한 평가의 경우 중학교는 '석차'를, 고등학교의 경우 '9등급의 상대 등급'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중학교의 경우 '석차 및 5등급(수, 우, 미, 양, 가)' 기록 방식 대신에 '3등급(우수, 보통, 미흡) 및 서술식' 기록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9등급 '상대 평가' 기록 방식 대신에 3등급 '절대 평가' 및 '서술식' 기록 방식으로 전환하고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중학교의 '석차'와 고등학교의 '석차 등급'을 삭제한 이번 내실화 방안은 결국 체육·예술 교과 학습 결과 중 교수-학습을 위한 평가 결과만을 제시하고,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평가 결과를 삭제하는 것이 주 내용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교과 내신 성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년의 학생 수, 이수 교과목의 수, 과목별 개인 석차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이렇게 보면, 이번 '체육·예술 교과 평가 결과 기록 방식 개선안'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즉, '석차'가 삭제되는 이번 방안은 현재의 내신 구조에서는 체육·예술 교과 성적 내신에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사실상 '내신 제외' 방안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 초·중등교육 정책과장 김양옥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체육·예술 교과의 기록 방법을 3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사실상 대학이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싶어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즉 내신 제외가 된다는 주장은 2003년 정책연구 과정에서 제시된 서술식 또는 성패식 방식이 도입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2008년 대입 전형에서 점수 및 석차가 아닌 등급을 활용하여 내신 성적에 반영하는 대학이 대부분인 점을 볼 때, 체육·예술 교과의 3등급도 내신 성적으로 활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2007년 7월 2일 교육부는 평가의 서열화 기능이 체육·예술 교과의 본질을 구현하기 어렵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서열화 기능대신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 3등급 절대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와 동시에 교육부는 이번 방안이 평가의 서열화 기능보다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내신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 허창혁은 이 같은 내신 반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3등급 절대 평가 방식은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적 기능에 적합한 평가 방식이지, 서열화 기능에 적합한 평가 방식은 절대 아니다. 때문에 서열화 기능이 부족한 3등급 절대평가 기록을 서열화에 이용하는 데는 당연히 무리가 따르게 된다. 우선 등급과 등급 사이의 구간이 무려 20점이나 되는 상황에서 그 차이를 그대로 내신에 반영하게 되면 오히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학습자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급 간의 차이를 거의 두지 않는 형태로 내신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서열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며 사실상 내신제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없게 된다.”(허창혁, 2007. p. 10)

위의 내용들을 종합·정리해 보면, 결국 3등급 절대 평가제는 내신 제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내신에서 제외되는 과목은 학생들에게 소외당함으로써 결국 과목으로서의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최경희는 6월 26일 국정브리핑에서 오히려 3등급 절대 평가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체육·예술 교육이 이전보다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최경희의 주장이다.

“잔디 구장에서 뛰어놀고, 친구 몇몇이 그룹사운드도 결성하여 연주하고, 피카소 흉내 내는 그림도 실컷 그려보고, 소품영화도 만들어 보고, 도자기도 빚어 보는, 이런 학생들의 활달한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면 학생들은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체험을 하려 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줄 뒤쳐져도 자신의 예술적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학생도 많아질 것입니다.”(청와대 최경희 교육문화비서관, 6월26일 국정브리핑)

그러나 2007년 7월 체육·음악·미술 교육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가 전국 학부모를 상대로 실시한 인터뷰에서, 전체 조사 대상자 중 71%가 체육·음악·미술 평가 방식이 3단계로 바뀌어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학습 부담이 같거나 늘어날 것이라고 답함으로써, 최경희의 주장은 근거 없는 추상적인 허구임이 밝혀졌다.

국책은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상상력만을 가지고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경희의 발언은 무엇을 근거로 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를 연구하는 국가의 정책은 반드시 그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증하여 정말 그것이 의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설 경우에 해당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에 정부가 개선안 연구가 최종 마무리되기도 전에 성급하게 체육·예술 교과 내 실화 방안을 발표한 것을 보면 내신 제외라는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이것을 향해 짜 맞추기식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2. 개선의 기본 방향

개정안의 자문위원인 박도순은 자신의 연구 자료에서 체육·예술 교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도표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7-37;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7-35).

<표 III-2> 체육·예술 교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의 기본 방향

체육·예술 교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의 기본 방향	
1. 성적 기록 방안이 중·고등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 원칙을 충실하게 고려한다. 2) 교육과정 목표 측정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3)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저해 되지 않도록 한다. 4) 고교의 경우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한다.
2. 성적 기록 방안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	1) 극심한 경쟁을 줄여서 학습자의 평가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갖게 한다. 2) 과외·학원 수강에 의존하기 보다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동료와 함께 협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감소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4) 교사의 평가 부담을 줄여 주어 교수-학습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도록 유도한다.

체육 · 예술 교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의 기본 방향	
3. 성적 기록 방안이 측정 및 평가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1) 점수 또는 평가의 측정학적 의미가 분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평가 기록이 학습 지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3) 생활 기록부 기록이 신뢰받고(신뢰도 향상), 합리적인 변별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교육적인 의미의 변별력 확보).
4. 성적 기록 방안이 체육 · 예술 교과의 특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1) 실기 중심의 수행 평가 강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창의력과 인성 교육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중학교의 성적 기록 방안이 고교 입시(과학교, 외고, 비평준화 지역 고교의 입시)에 합리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측정 · 평가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변별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중학교 전체 교과 내신 산출에 있어서 교육과정 운영 원칙에 따른 반영 비율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생활 기록부 기록 방안이 학생들의 신뢰 이익 보호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1) 생활 기록부 기록 개선 방안 도입 시기는 학생들의 사전 인지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생활 기록부 기록 방안이 소수의 학생들이 이수할 경우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7.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 관련 1: 성적 기록 방안이 중 · 고등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연구자는 체육 · 음악 · 미술 교과가 학생들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인성 교육의 중요한 바탕이 되는 교과라고 강조하면서, 교육과정의 편성에 근거하여 “체육 · 예술 교과의 서열화, 객관화된 평가는 교과의 특성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활동 의욕과 창작 의욕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체육 · 예술 교과에서 학생들의 개성, 창의

성, 심미성 등이 존중되고 장려되기 위해서는 객관화된 서열화 평가보다는 질적 판단과 기술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그는 고교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경우, 최소 이수 인원을 20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9등급으로 강제 할당하는 방식에서는 이수자 수가 적은 교과 이수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에서의 원래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평가 방식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관련 2: 성적 기록 방안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

연구자는 성적 기록 방안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평가 방식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2008년 대학 입시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을 50%이상 높이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대 평가 요소는 모두 없애고 상대 평가가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로 인한 극심한 경쟁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극심한 과열 경쟁으로 인한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체육·예술 교과의 평가 방식 개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주당 수업 시간이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체육·예술 교과에서 교사들이 객관화된 평가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수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시간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평가 방안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관련 3: 성적 기록 방안이 측정 및 평가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연구자는 학생의 능력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측정·평가되고 기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육·예술 교과의 경우는 인지적 영역의 일반 교과와는 달리 학습 결과를 양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쉽지 않고 학생들의 능력을 세밀하게 분류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제 능력과 등급 측정 간에 오류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육·예술 교과와 특성에 적합한 평가의 등급을 정하고 등급의 분명한 측정학적 의미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그는 등급 단위별로 학습자의 교과 능력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변별력을 통해서 평가 기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육·예술 교과와 평가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관련 4: 성적 기록 방안이 체육·예술 교과와 특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연구자는 체육·예술 교과와 지적 능력과 특정 기술의 함양을 강조하는 일반 교과와 달리 신체적·표현적 활동과 감수성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지필 검사나 실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 평가보다는 학생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가능한 수행 평가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체육·예술 교육의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의 창의력을 촉진하고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데 기여를 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 관련 5: 중학교의 성적 기록 방안이 고교 입시(과학고, 외교, 비평준화 지역 고교의 입시)에 합리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자는 일부 특수목적형 고등학교(예: 과학고, 외국어고, 체육·예술 고등학교 등)와 비평준화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와 성적이 내신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능력 및 가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체육·예술 교과와 학생 간 능력 변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 선에서 기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그는 중학교 체육·예술 교과와 주당 수업 시간(체육: 7·8학년 각각 3시간, 9학년 2시간/ 음악: 7학년 2시간, 8·9학년 각각 1시간/ 미술: 7·8학년 각각 2시간, 9학년 1시간)이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의 원칙에 근거하여 교과별로 내신 반영 비율을 차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관련 6: 생활기록부 기록 방안이 학생들의 신뢰 이익 보호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연구자는 새로운 개선안이 급하게 적용되면 혼란을 야기하고, 또 바뀔지도 모른다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충분히 홍보를 한 후 3년 후에 이 개선안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한 학년 2학급 미만이나 한 학급 25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서의 불필요한 서열화 문제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비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체육·예술 교과의 평가기록 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관련 7: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2007년 2월에 수시 개정된 교육과정에 의하면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선택 군이 체육 교과 군과 음악·미술 교과 군, 즉 2개의 교과 군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은 개정된 교육과정이 체육·예술 교과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정책적 일관성 차원에서 체육·예술 교과의 성격에 맞는 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3. 주요 개선 내용

연구보고서(책임연구자: 정택희)는 기록 방식에 대한 주요 개선 내용으로서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정택희, 2007; pp. 109-112).

<표 III-3> 체육·예술 교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에 대한 주요 개선 내용

체육·예술 교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에 대한 주요 개선 내용
1.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2. 석차/제적수(중학교)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는 기록 요소에서 제외한다.
3. 체육·예술 교과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으로서 등급과 서술식을 병행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위와 같이 개선안은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석차/재적수(중학교)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는 기록 요소에서 제외하며, 체육·예술 교과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으로서 등급과 서술식을 병행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 관련 1: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책임연구자 정택희는 체육·예술 교육은 지적으로 미리 정해진 가치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과 표현의 내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발휘하는 교육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여유 있고 풍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학생들은 입시에서의 비중과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체육·예술 교과는 대부분의 학생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중심으로 지도하여야 하며, 절대 평가를 실시하여 성공적인 학습 결과를 학생에게 피드백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관련 2: 석차/재적수(중학교)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는 기록 요소에서 제외한다.

연구자는 학생들의 체육·예술 교과 학습 활동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서열화하는 기록 방식인 중학교의 석차/재적자수 기록과 고등학교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기록은 공정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하여 교육적인 실익이 없으므로 기록에서 제외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그는 외국어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내신 점수를 산출할 때 석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서열 경쟁의 여지를 담고 있다면서 석차를 기록 요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그는 체육·예술 과목을 내신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체육·예술 교과의 석차 등급만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점수 기록은 기록부 작성의 실용성 기준을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관련 3: 체육·예술 교과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으로서 등급과 서술식을 병행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여론 조사에서 중학교의 경우는 현행 유지

와 등급 수 확대에 의견을 모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현행 유지와 등급 수 축소에 의견을 모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체육·예술 교과 외 교수, 교육과정·교육평가 전문가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등급 수를 중·고등학교 모두 3등급(우수, 보통, 보통이하/또는 미흡)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는 미국에서는 예술 교과에 대하여 2등급(성패식: pass/fail)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시 연구자도 체육·예술 교과의 평가로서 성패식 평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상급 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최소한 3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정택희는 등급의 비율은 강제로 할당된 비율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예술 교과의 등급 비율은 실제로 학생의 능력 및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체육·예술 교과에 대하여 등급 비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²⁾

한편, 정택희는 체육·예술 교과의 평가에 대한 기초 자료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등급을 세분화하여 기록하는 경우 기록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체육·예술 교과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히 3등급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3등급제라는 단일 등급의 시스템으로는 공정성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부여된 등급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직하고 공정한 서술식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서술식 평가는 현재와 같은 좋은 말, 막연한 말, 모호한 말 등이 아닌 구체적인 서술 평가로서, 설정된 기준(교육 목표)에의 접근 정도, 개인의 상황적 특성(노력, 적성, 재능, 출발점 행동, 학습 태도 등)과 진보(목표에의 접근 정도) 그리고 성장(출발점 행동과 도달점 간의 거리)의 정도에 대하여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2) 정택희는 등급 비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적성이 낮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여 70점을 얻은 것과 적성이 높은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70점을 받은 경우 비율을 정해 놓으면 이 두 학생은 동일한 등급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는 두 학생의 교육적 성취는 전혀 다른 것이다. …(중략)… 등급의 비율을 고정화 시킬 경우 동일한 등급을 받은 학생은 동일한 능력을 가졌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서술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자가 주장하는 중·고등학교 체육·예술 교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안을 요약·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4> 중·고등학교 체육·예술 교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안

【중학교】

구분	현행	개선안
전교 석차/재적 수	- 전교 석차/재적수 제시	- 전교 석차/재적수는 제외
등급	- 5등급(절대평가)	- 3등급(절대평가)
서술식	- 교과별로 특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 기재	- 등급의 의미를 보완할 수 있는 서술식 기재 내용 강화

【고등학교】

구분	현행	개선안
원점수/평균(표준편차)	- 원점수/평균(표준편차) 제시	- 원점수/평균(표준편차) 제외
등급	- 9등급(상대평가) - 정상분포를 가정한 등급별 비율	- 3등급(절대 평가)
서술식	- 교과별로 특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 기재	- 등급의 의미를 보완할 수 있는 서술식 기재 내용 강화

교육부는 위와 같이 개선된 평가 결과 기록 방식을 2009년도 중1, 고1 신입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훈령: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7-76호, 2007. 7.2). 교육부는 위와 같은 개선안을 바탕으로 하여 생활기록부를 다음과 같이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교육부, 2007).

<표 III-5> 중·고등학교 체육·예술 교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양식

【중학교】

현행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성취도	석차/재적수	성취도	석차/재적수	
개선안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등급	특기사항(기술)	등급	특기사항(기술)	

【고등학교】

현행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 수	석차등급 (이수자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단위 수	석차등급 (이수자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개선안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등급	특기사항(기술)		등급	특기사항(기술)		

4. 기대 효과

연구보고서는 평가 기록 방식 개선안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정택희, 2007; pp. 115-118).

<표 III-6> 평가 기록 방식 개선안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교육부가 제시한 기대 효과
1. 석차(중학교)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고등학교)을 기록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나친 개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협동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이 가능해 진다.
2. 등급을 3단계로 함으로써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완화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변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3. 등급 부여를 교사에게 맡김으로서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하고 등급을 축소함으로써 교사의 평가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대 효과

4. 교과 본질에 적합한 정상적 교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다.
 5.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고 학습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

IV. 개선안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1. '개선의 기본 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 성적 기록 방안이 중·고등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1) 교육과정 목표 측정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박도순은 체육·예술 교과에서 학생들의 개성, 창의성, 심미성 등이 존중되고 장려되기 위해서는 객관화된 서열화 평가보다는 질적 판단과 기술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그는 체육·예술 교과는 주관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학교에서의 평가는 인간의 내면적 특성을 평가하는 주관적인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의 평가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과정 및 결과에서의 학업 성취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학교의 평가는 음악적 재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지도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피드백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악 평가도 역시 교사가 지도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다. 오히려 연구자의 논리라면 교육부가 강하게 요구하는 논술 평가야 말로 측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문제는 연구자가 전체 교과를 근본적으로 인지적 발달을 다루는 교과 그리고 정의적·심동적 발달을 다루는 교과로 양분화 시켜 파악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연구자의 이 같은 주장은 인지적·정의적·심동적 영역이 본질적으로 서로 얽혀져 학습자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단순한 주장이라고 본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존 교육이 인지적 발달과 정서적·심동적 발달을 분리된 차원의 발달로 이해한 것은 사실이다. 연구자 역시 국어, 영어는 언어적 능력을 길러주고, 수학, 과학은 수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길러주며, 체육은 신체의 움직임을 그리고 예술 교과(음악, 미술)는 미적 감각을 길러주는 교과로 단순히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체육·예술 교과와 같이 교과 성격상 개인의 정서, 감성 등 주관성이 개입되는 활동 중심 교과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라는 표현에서도 증명되어 진다.

체육·예술 교과가 활동 중심 교과라는 논리는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인지 발달 영역 간의 관계를 왜곡시킴으로서 교육의 잘못된 실천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즉, 체육·예술 교과는 인지적 영역과 무관하며, 따라서 활동 중심으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기를 원하는 노래 부르기는 셈여림, 빠르기, 화성 등 다양한 음악적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인지의 과정을 거쳐 심동적 반응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음악 시간에 음악을 듣고 음악적 느낌을 논리적인 문장이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다. 더욱이 음악을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으로 악보를 익혀야 하는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론적 지식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이론적 지식은 충분히 객관적인 지필 평가로 평가되어져야 한다. 정서/인지 구조(emotional/ cognitive structures; ECS)에 대한 뇌 이론을 제시한 그레이(Gray)와 라비올레타(LaViolette)는 정서적 뉘앙스는 사고와 지식을 조직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인지적·정의적 영역은 본질적으로 서로 얽혀져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이론은 교과의 특성 및 학습자 발달 영역의 역할을 구분하는 논리를 극복하고, 교과와 학습자의 발달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류태호, 2007. p. 70-71). 지금까지 학생의 전인적 발달보다는 교과와 특성에 한정적으로 제한된 실천을 보여준 체육·예술 교과와 특성을 이제부터라도 체육·예술 교육에서 인지적·정의적·심동적 발달을 통합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제한적인 교과 역할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2) 고교의 경우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한다.

또한 연구자는 고교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경우, 최소 이수 인원을 20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9등급으로 강제 할당하는 방식에서는 이수자 수가 적은 교과 이수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교과에서 원래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평가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라면 이산수학, 문학, 지구과학Ⅱ, 정치·경제, 한문 등 많은 과목 중에서 학교와 학생의 선택으로 배치되는 과목들에 대해서도 평가 방식 변경의 불가피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수자가 적은 것을 문제 삼는다면 20명 정도로 운영되는 한문 교과의 경우 체육·예술 교과 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선택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 유독 체육·예술 교과에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 고교의 경우 입시에 반영되는 내신의 성적이 교과 이수 단위(수업 시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예술 교과는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더한 차별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개선안이 진정으로 체육·예술 교과를 위하는 대책 개선안인지 정말 납득할 수 없다.

나. 성적 기록 방안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

1) 극심한 경쟁을 줄여서 학습자의 평가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갖게 한다.

연구자의 “극심한 경쟁을 줄여서 학습자 평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자”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지극히 형식적인 주장이다. 왜냐하면 지나

친 경쟁과 서열화를 극대화시키는 교과는 누구나 다 아는 국·영·수 등의 과목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블랙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초·중·고 교육뿐 아니라 조기 교육에서부터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가 모든 교과를 인정하고 모든 교사를 존중한다면, 교과에 대하여 반드시 성적 평가가 주어져야 하고, 모든 교사에게는 평등하게 평가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이미 모든 교과는 서열화 된 성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체육·예술 교육이 서열화 평가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지나친 경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지 과목 중심의 지나친 경쟁과 서열화가 더욱 극대화되면서 분명히 학교는 내신 학원화로 전락할 것이다. 연구자는 이점을 간과한 것 같다. 현 입시의 상황에서 성적 평가를 차등화 시키는 현상은 과목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극심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수·국 등의 주지 과목을 내신 성적에 적게 반영하거나 비율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으로 극심한 경쟁을 줄이는 대안일 것이다. 설마 개선안 연구자들도 학생들의 극심한 경쟁이 체육·음악·미술 교과로 인해 유발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다만 정부의 의도된 정책에 부응하려다 보니 이러한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났으리라 생각한다.

2)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감소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감소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는 연구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습 부담의 주범이고 사교육비의 주범인 영어·수학·국어·사회·과학을 내신에서 적은 비율로 축소시켜 입시에 반영하고, 서열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환원하여야 하며, 또한 정직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서술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대책 연구를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체육·예술 교과를 내신에서 제외시킨 채 국·영·수 등 주지 교과 중심으로 내신 반영률을 50% 이상 더욱 강화시킨다고 한다면, 단지 체육·예술 교과를 내신에서 제외시킨다 하여 과연 학습자의 학습 부담이 감소하고 사교육비가 절감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학교는 주지 과목 중심의 내신 학원으로 전략할 것이 뻔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체육·예술 교과가 자율 학습 정도의 시간으로 변칙 운영될 것이 자명하며,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더욱 더 가중되고 사교육비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으로, 주지 과목을 중심으로 한 큰 비중의 내신 반영은 예술·체육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예술·체육 과목을 포기하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학습 부담을 안겨 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 감소 및 사교육비 절감을 이유로 이 정책이 발단되었다면, 이 정책은 체육·예술 교과 자체에 대한 경시 풍조에서 나타난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체육·예술 교과로 숨통을 트고 있는 학생들에게 예술·체육 교육마저 박탈해 버린다면, 국·영·수 과목에 대한 학습 부담이 가중되어 교육 상황은 더욱 삭막해지고 황폐화 될 것이 분명하다.

연구자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개선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이것 역시 매우 형식적인 이유이다. 교육부가 체육·예술 교육을 내신 제외로 내모는 정책으로 몰아갈 경우 사교육비 절감은커녕 오히려 주지 과목 위주의 경쟁이 과열됨으로써 사교육비가 반대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얼마 전 TV에서 어느 학원이 기본 수강료의 13배 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물론 주지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다. 왜 유독 예술·체육 교과만을 트집삼아 사교육비와 관련시키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주지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주지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예술·체육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도 체육·예술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경인교대 권덕원 교수는 체육·예술 교과 평가 방식의 개정안이 특정 그룹의 학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평가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권덕원, 2007. pp. 1-9). 그는 학생들의 성향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

류·분석하여 이 개정안이 특정인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임을 밝히고 있다(권덕원, 2007. p. 4).

<표 IV-1> 학생들의 4가지 성향

	대학 입시 과목 성적 상	대학 입시 과목 성적 하
음·미·체 성적 상	I 그룹	II 그룹
음·미·체 성적 하	III 그룹	IV 그룹

I 그룹	대학 입시 과목의 성적이 좋으며 음악·미술·체육 성적도 좋음	→	피해를 봄	III 그룹의 약진으로 상대적으로 더 치열한 경쟁에 들어감.
II 그룹	대학 입시 과목의 성적은 나쁘나 음악·미술·체육 성적은 좋음	→	피해를 봄	음·미·체 교과가 절대 평가됨으로 서 내신을 올릴 수 있는 기회 박 탈, 어려운 경쟁에 들어 감
III 그룹	대학 입시 과목의 성적은 좋으나 음악·미술·체육 성적은 나쁨	→	혜택을 봄	음·미·체 교과로 발목이 잡혀 대 학 진학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그룹. 개선안이 매우 유리한 제도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
IV 그룹	대학 입시 과목의 성적이 나쁘며 음악·미술·체육 성적도 나쁨	→	영향 없음	부담이 없어 심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유익은 아무 것도 없음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개선안의 제도로 혜택을 보는 그룹은 실제적으로 하나의 그룹(III 그룹)뿐이다. 즉, 이 개선안은 특정 소수를 위한 개정안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사 이병호는 음악·미술·체육 과목을 실제로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대학이 전체 대학의 약 12% 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전국의 수도권 및 주요 시도의 25개 주요대학 가운데 일반학과는 물론, 관련 학과 조차도 음악·미술·체육 교과를 내신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13개교(52%), 체육, 예술 관련 학과에서만 반영하는 대학이 9개교(36%), 전체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3개 대학(12%)로 파악되고 있다. 그나마 서울대의 경우 음악·미술·체육 교과는 다른 교과와 달리 '미, 양, 가'에 대해서 단계별로 0.5점씩 감점을 하고 있어 사실상 변별력이 없는 형식적 반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2개 대학(8%)만이 예체능을 포함한 전 교과를 내신

성적에 반영하고 있을 따름이다. 물론 약간이라도 반영되는 12%의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음악·미술·체육 과목이 학습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반대로 음악·미술·체육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 만일 그렇다면 교육부의 발표는 12%의 대학에 지원할 것이 예상되는 학생들에게 한정되는 이야기일 뿐이다. 도대체 대학 입시에 100% 이상으로 반영되는 주지 교과에 대한 학습 부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의 고통과 입시 지옥의 현주소 앞에서 고작 12%에 대한 학습 부담을 운운하는 것이 교육대계를 위한 고민이란 말인가? 이 개선안은 위의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Ⅲ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의 학부모에 의하여 야기된 연구로 밖에 볼 수 없다. 솔직히 표현하자면 이들 학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특목고나 대학에 보내기 위해 주지 과목에 정성을 쏟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음악·미술·체육 교과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교육부가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3) 교사의 평가 부담을 줄여서 교수-학습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음악·미술·체육 교과는 주당 1-2시간의 수업 시수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가의 부담을 줄이고 그 시간을 교수-학습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교육부가 음악·미술·체육 교과를 순수하게 위해 준다면, 평가 부담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정상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체육관, 음악실, 미술실, 수업 기자재 등 쾌적한 수업 환경을 조성해 주고, 정상적인 음악·미술·체육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도한 입시 교육을 철폐하고, 교수-학습과 평가를 위하여 제대로 된 교사 연수를 편성·지원하여야 하며, 그리고 음악·미술·체육 교과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교과 흔들기나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다.

교육부는 교사의 평가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개선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이 개선안이 음악·미술·체육 교사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안겨 주는지 모르는 것 같다. 교육부는 3등급 평가와 서술식 평가를 통해 교사의

평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정말 답답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본인은 한 때 신림동에 소재한 인문계 S고등학교에서 900여명의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다. 이러한 900명이나 되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서술 평가로서 즉, 설정된 기준(교육 목표)에의 접근 정도, 개인의 상황적 특성(노력, 적성, 재능, 출발점 행동, 학습 태도 등)과 진보(목표에의 접근 정도) 그리고 성장(출발점 행동과 도달점 간의 거리)의 정도에 대하여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서술적으로 기록할 수 있단 말인가? 5·6백 명 이상의 학생을 담당하는 중등학교 교사가 이러한 서술식 평가를 한다면, 몇 배로 가중되는 평가 업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의 발상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우리나라의 학교는 학생 수가 적은 외국의 경우와는 다르다. 평가 부담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가 방식 개선안이 만들어 졌다고 하나, 현실을 외면한 개선안은 더욱 더 불신으로 치닫게 하는 허구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음악·미술·체육 교육을 진정으로 위해 준다고 한다면, 교육부는 올바른 교수-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다한 학생 수를 축소시켜 주고, 교과 업무 외의 많은 과외 업무(잡무 부담)를 줄여 주어야 하며, 그리고 충분한 예산으로 부족한 수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바라건대 과다한 학생 수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충분히 교사를 채용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참고로 서울은 몇 해 동안 중등학교 음악 교사를 위한 임용 고사가 없었으며, 겨우 금년에야 음악 교사 1명을 임용하였다.

다. 성적 기록 방안이 측정 및 평가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1) 평가 기록이 학습 지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연구자의 표현대로 평가 기록은 학습 지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만 한다. 이 점에서는 음악·미술·체육 교과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과목들이 예외일 수 없다. 평가 기록이 학습 지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서열을 세우는 상대 평가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올바로 진단할 수 있는 절대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어떤 교과를 막론하고 학교 교육은 절대 평가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극심한 입시 위주로 흐르는 학교 교육에서 부득이 내신 성적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대 평가 체재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교육부가 갑자기 음악·미술·체육 교과에만 한정해서 절대 평가를 적용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절대 평가를 모든 과목에 적용시키지 않고 유독 음악·미술·체육 교과에만 적용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모순적 논리이다. 교육부는 절대 평가의 대상이 음악·미술·체육 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과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2) 생활 기록부 기록이 신뢰받고, 합리적인 변별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생활 기록부 기록이 신뢰받고, 합리적인 변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교육 과정은 수행 평가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평가 방식 개선안이 친절하게 강조하지 않아도 아마도 수행 평가는 음악·미술·체육 교과가 다른 교과에 비해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자는 전교생이 동시에 쪽지 시험의 형태로, 아니면 일제 고사로 수행 평가의 항목을 채우고 있는 다른 주지 교과들에게 이 주장을 강하게 요구를 하여야 한다.

어쩌면 음악·미술·체육 교과가 수행 평가를 효과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입시에 몰두하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방해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음악·미술·체육 교과가 주지 과목 학습에 방해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음악·미술·체육 교과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주지 교과 중심의 대입 경쟁 체제를 굳건히 다지겠다는 의지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라. 성적 기록 방안이 체육·예술 교과의 특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1) 실기 중심의 수행 평가 강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교과 전문가들이 수행하여야 할 영역이다. 연구자는 실기 중심의 수행 평가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이 대체 어느 시대인데 과거에 중시되었던 실기 교육을 앞세워서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연구자의 저의를 파악할 수 없다. 현대가 요구하는 음악 교육의 평가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자가 새 음악과 교육 과정을 한번이라도 살펴보았다면 실기 중심 수행 평가를 강조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음악 교과는 정서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음악 경험 및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기초적인 음악적 지식의 습득, 음악적 구성 요소의 이해 등 이론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개정 7차 교육 과정은 문화적·사회적 맥락에서 음악을 이해하는, 즉 사고력에 바탕을 둔 인지적 측면도 정의적 측면 못지않게 상당히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음악의 생활화 부분도 중요시 하고 있다. 현대의 음악 교육은 제2차 음악과 교육 과정(1963-1973)이 강조한 경험 중심 교육 과정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음악 교과를 실기를 통한 음악 전문가 양성이 목적이 아니다. 학생들의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인지적·정의적·심동적 영역 모두를 동시에 중시하면서 다양한 방법에서의 다양한 수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마도 연구자는 주지 과목과 음악·미술·체육 과목을 차별화시킴으로써 평가 방식을 달리하는 구실을 찾고자 실기를 강화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2) 창의력과 인성 교육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의력과 인성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음악·미술·체육 교과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음악·미술·체육을 내신에서 제외시키는 정책이 창의력과 인성 교육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부는 음악·미술·체육을 내신 제외로 몰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추상적인 대책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음악·미술·체육을 위하여 교육부가 5년간에 걸쳐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이 지원 정책이 ‘음악·미술·체육 평가 방식을 3등급으로 한 내신 제외’를 빅딜로 제시하였다면 옹졸한 정책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다음의 진술은 충분히 빅딜이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얼마 전 교육부 총리 보좌관과 갖게 된 한 대담 자리에서 보좌관을 비롯한 청와대 측에서 저에게 빅딜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아닌, 내신제외 정책을 받아들이면 예술·체육 과목 교육을 더욱 강화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술·체육 교육이 부실해 지는 것을 ‘학교 평가제’라는 것으로 막겠다는 제안이었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교육부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육부로 들어오는 민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 일반 민원, 둘째로는 총리실로 직접 들어오는 고급 민원으로 구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고급 민원은 일명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우는, 권력과 부를 소유한 일부 강남 학부모들에게서 직접 들어오는 것을 일컫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들 오피니언 리더가 지닌 힘이 너무도 막강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이영국, 2007. p. 85).

마. 중학교의 성적 기록 방안이 고교 입시(과학교, 외고, 비평준화 지역 고교의 입시)에 합리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측정·평가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변별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과학고,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그리고 비평준화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내신 성적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예술 교과목의 경우도 입학 자료로서 효용성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변별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효용성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변별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구자는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근거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음악·미술·체육 교과목도 다른 교과목과 똑같은 조건에서 평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 시점에서 3단계의 평가 기록 방식은 오히려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에서 연일 보도되는 문제가 바로 대학 입시에 내신을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현 정부는 대학 입시에서 내신을 제외하면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주장하면서 입시 때 내신의 비율을 50% 정도로 높여 줄 것을 대학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학습 부담을 경감시킨

다는 이유로 음악·미술·체육 교과에 대하여 내신 제의를 동시에 주장하는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완전히 모순되는 그들의 논리만 보더라도 이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고 일관성이 없는지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중학교의 성적 기록 방안이 과학고, 외고, 비평준화 지역 고교의 입시에 합리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강남 지역 일부 학부모들과 특목고에 자녀를 진학시키기 원하는 몇몇 학부모들이 이번 정책에 대하여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계층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교사 이영국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소위 강남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단소 시험, 줄넘기 시험 하나를 위해서도 따로 과외를 받을 정도로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적, 시간적 노력으로도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 경우, 이들이 교육부에 고급 민원을 넣어 체육·예술 교과 내신 때문에 고등학교 혹은 대학 입시에서 피해를 본다면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입김은 교육부 측에서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큰 영향력을 지닌 것입니다.”(이영국, 2007. p. 85)

역시 교사 노혜정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민족사관고로의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던 한 학생이 음악 과목에 미를 맞으면서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그 학생의 학부모가 학생의 음악 성적을 고쳐달라며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들의 입김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학교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노혜정, 2007. p. 88)

바. 생활 기록부 기록 방안이 학생들의 신뢰 이익 보호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1) 생활 기록부 기록 방안이 소수의 학생들이 이수할 경우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고등학교의 경우 9등급으로 정해진 비율을 통해 상대적으로 등

급이 결정되므로 10여명이 선택하고 있는 경우 9등급까지 배정해야 하는 불이익이 내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소수의 학생이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라면 이산수학, 문학, 지구과학Ⅱ, 정치·경제, 한문 등 많은 과목 중에서 학교와 학생의 선택으로 배치되는 과목들도 음악·미술·체육 교과와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유독 음악·미술·체육 교과만 3등급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미 내신 제외라는 결과를 정해 놓고 여기에 짜 맞추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시키는 인상이 강하게 풍긴다.

2.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한 평가 방식 개선안 연구보고서에는 평가 기록 방식 개선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들이 기대된다고 진술되어 있다(정택희, 2007. pp. 115-118).

<표 IV-2> 평가 기록 방식 개선안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교육부가 제시한 기대 효과

1. 석차(중학교)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고등학교)을 기록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나친 개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협동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이 가능해 진다.
2. 등급을 3단계로 함으로써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완화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변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3. 등급 부여를 교사에게 맡김으로써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하고 등급을 축소함으로써 교사의 평가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다.
4. 교과 본질에 적합한 정상적 교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다.
5.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고 학습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기대 효과들에서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1번 항 ‘개선의 기본 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에서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히 주요 쟁점들만 다루기로 한다.

가. ‘지나친 개인 간 경쟁 완화 및 협동적 학습 분위기 조성’에 대한 문제점 제기

체육·음악·미술 평가 방식 변경에 따른 학습 부담 감소 여부를 묻는 학부모의 인식도 조사에서, 조사 결과 전체 중 71%가 체육·음악·미술 평가 방식이 3단계로 바뀌어도 학습 부담이 같거나 늘어날 것이라고 답하고, 오직 27.5%만이 학습 부담이 줄 것이라고 답함으로써 평가 방식 변경이 오히려 학습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나친 학습 부담은 결국 개인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이로 인하여 긴장된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정부는 개선안의 근거 없는 주장을 취소하고, 학습 부담을 부추기는 입시 제도하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체육·음악·미술 평가 방식 변경이 학습 부담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표 IV-3> 체육·음악·미술 평가 방식 변경에 따른 전반적 학습 부담 감소 여부 평가

		학습 부담이 줄 것이다	학습 부담은 같을 것이다	학습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모름/ 무응답	계
학교 급별	중학생	68(27.2%)	120(47.9%)	60(24.1%)	2(0.7%)	250(100.0%)
	고등학생	70(27.8%)	100(40.0%)	75(30.1%)	5(2.1%)	250(100.0%)
	계	138(27.5%)	220(43.9%)	135(27.1%)	7(1.4%)	500(100.0%)
학교 소재	서울	36(31.9%)	48(43.1%)	26(23.3%)	2(1.7%)	112(100.0%)
	광역시	29(24.5%)	53(43.8%)	34(28.1%)	4(3.6%)	120(100.0%)
	중소도시	69(27.1%)	114(45.2%)	69(27.3%)	1(0.4%)	253(100.0%)
	읍면지역	4(25.7%)	5(30.5%)	6(43.8%)	0(0.0%)	15(100.0%)
	계	138(27.5%)	220(43.9%)	135(27.1%)	7(1.4%)	500(100.0%)

나. '등급 부여를 교사에게 맡김으로써 교사의 평가권 강화'에 대한 문제점 제기

교육부는 3등급 부여로 교사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등급 평가 정책은 교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이 아닌, 오히려 자율적 평가를 박탈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주장대로 자율성이 부여된다면 교사는 상대평가가 아닌 3등급 절대 평가에서 체육 및 예술 활동을 무시하는 학생들에게 양심껏 최하인 '미흡' 등급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럴 때에 교사의 자율성이 진정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사가 '미흡' 등급을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 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교사의 교권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 추진의 담당자들은 현재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3등급 평가 정책이 결코 내신 제외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영·수 중심의 교과목들이 현행 9등급(고등학교)과 원점수로 기록되어 제공되는 상태에서 예술·체육 교과만을 따로 표기하는 것은 사실상 대학 측이 내신을 반영하고 싶어도 반영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과연 3등급 평가 방식의 전환이 음악 교과의 내실화인지, 아니면 일부 학부모들의 여론몰이에 따라 주지 교과 학습에 부담이 되는 예술·체육 교과를 내신에서 차차 제외시키려는 의도인지 의심이 든다.

Ⅵ. 나가면서

입시와 서열화가 우리 교육을 규정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미래에 우리 교육의 희망을 기약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옳을 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가장 큰 책무를 맡고 있는 곳은 바로 교육부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21세기는 논리, 언어, 과학, 중심의 세계관보다 감성, 이미지, 문화 중심의 세계관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이다.”라고

표명한 바 있다(곽병선 외, 1996). 이러한 점에서 국책은 이러한 인식에 적합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방안이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교육부가 제시한 음악·미술·체육 평가 방식 개선안의 정당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기대 효과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정책적 전략에서 내신 제의를 목표로 한 개선이다.

이 ‘3등급 절대 평가 개선안’은 내신 제의를 목표로 정책적 전략에 따라 만들어진 안이다. 9등급 간의 격차를 둔 평가 방식에서 등급 간 격차가 없는 3등급 평가 방식은 내신 성적 비율을 반영하는 교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3등급 간에 큰 격차를 둘 경우에는 학습자들에게 엄청난 학습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3등급 절대 평가 개선안’은 내신 제의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전략에 따라 만들어진 방안이 틀림없다.

둘째, 근거의 주장이 매우 빈약하여 타당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방안이다.

‘전인 교육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체육·예술 교육의 내실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이번 개선안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 구조가 매우 빈약하고, 근거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며 또한 부적절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 그 근거 체계에서 타당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번 연구는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대한 국책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단기에 이루어졌다. 즉,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에 기초해 성급하게 마련된 방안으로서 그 타당성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개선안은 학교 교육의 현실과 괴리된 방안으로서,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3등급 절대 평가 개선안’은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이다.

입시 중심의 교육 현장에서 내신 반영으로부터 제외되는 교과는 학생들이 분명히 외면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체육·예술 과목을 입시 중심 과목의 학습으로 악 이용함으로써 학습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내신 반영

에서 제외되는 교과와 해당 교사들이 소신 있게 평가(특히, 수행 평가)를 할 경우 학생들은 학습에 대하여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사의 자율권 역시 박탈될 수 있다.

넷째, '3등급 절대 평가 개선안'은 체육·예술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방안이다. 체육·예술 교육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방안은 오히려 체육·예술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방안이다. 이번 방안은 입시와 점수가 학교를 규정하는 학교 교육의 상황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방안이다. 역시 학교 교육에서 체육·예술 교과는 학생들의 입시 준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번 개선안은 입시 경쟁 과열을 부추기면서 사실상 '체육·예술 교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는 방안이다.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처사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문제는 국·영·수 과목 중심의 입시 경쟁 구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시 경쟁의 구조 속에서는 주지 과목 외의 어떤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3등급 평가 정책은 추진의 당위성이 매우 부족할 뿐더러,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또한 상실되어 있는 것이기에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번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부작용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후세들이 짊어져야 할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가 체육·예술 교과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교육의 문제를 단 시간에 해결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수정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기초로 교과영역별 해당 교사 및 해당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교과영역 별로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곽병선 외 10인(1996). **교육과정 2000 연구 개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인적자원부(2005).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지침의 제·개정 취지 및 성격**.
- 교육인적자원부(2007).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를 통한 인성과 창의성 교육의 비전 제시**.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6월 13일자.
- 권덕원(2007). “교육부의 ‘예술 및 체육 평가 개정안’에 반대하며”, **음악교육 방법의 제조병**(2007년 제38회 여름학술세미나 자료), 한국음악교육학회. pp. 1-9.
- 김홍주(2004).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중 ‘학교교육 내실화 대책’의 타당성 검토”, **교육법학연구**, 16(1), pp. 71-96.
- 노혜정(2007). 『**음악춘추**』, 서울: 음악춘추사.
- 류태호(2007). “체육·예술 교과의 본질과 학교 교육”, **중등학교 체육·예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에 대한 공개 토론회**(연구 자료 RM 2007-37), 한국교육개발원. pp. 68-81.
- 민경훈(2007). “정부의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 방안’ 중 ‘평가 결과 기록 방식 개선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토론”, **3등급 평가, 체육·음악·미술 교육 포기인가 내실화인가**, 체육·음악·미술 교육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p. 4-21.
- 박도순(2007). “체육·예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의 기본 방향”, **중등학교 체육·예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에 대한 공개 토론회**(연구 자료 RM 2007-37), 한국교육개발원. pp. 3-14.
- 박만용(2007). “체육·예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에 대한 토론”, **중등학교 체육·예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에 대한 공개 토론회**(연구 자료 RM

- 2007-37), 한국교육개발원. pp. 86-113.
- 백순근 외(2003). 『교과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원미사.
- 성경희 외(2004). **체육·음악·미술 교과 평가 체제 개선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영국(2007). 『음악춘추』, 서울: 음악춘추사.
- 임현식(2000). “수요자 중심 교육의 교육학적 타당성 분석”, **교육철학**, 23, pp. 167-184.
- 정정길 외(2003). 『정책학 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 정택희(2007). **체육·예술 교과 평가 방법 개선 방안 연구(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을 중심으로)**(수탁연구 CR 2007-35), 한국교육개발원.
- 허창혁(2007). “정부의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 방안’ 중 ‘평가 결과 기록 방식 개선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3등급 평가, 체육·음악·미술 교육 포기인가 내실화인가**, 체육·음악·미술 교육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pp. 4-21.
- Ferguson, M.(1982). **New theory: Feelings code, organize thinking special issue**, part I. *Brain/Mind Bulletin*, 7(6).